



아시아여성네트워크 보도자료

배 포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담당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 대표 황정아 010-4078-1192
---------	-----------------	----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광주여성단체회관 2층

Tel :062 681-1192 Fax: 062-361-6076 E-mail: asiasisnet@gmail.com asiasisnet@naver.com

<http://asiasisnet.org/>

보도요청

2023년 미얀마 분쟁지역 아동청소년 학습권 지원을 위한 학용품 지원 활동 종료

(사)아시아여성네트워크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미얀마 분쟁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용품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미얀마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사히 전달하였다. 광주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학용품은 양곤, 바고, 예야워디, 몬, 카야 주의 교육 시설, 마을 학교, 보육원, 피난민 캠프의 학생, 교육 서비스가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학생 등 870여 명에게 나눔을 진행했다. 학용품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 리더들, 지역 예술가 단체들과 협업하여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트라우마 회복에도 기여하였다.

학용품을 지원받은 교육시설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교육은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이 학습 자료들은 가장 어린 학습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당신들의 친절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학습 자료와 예술 활동 시간 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 감을 만들어 냈다.

-(분쟁 때문에) 우리는 자주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만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외부인으로 느낀다, 이 학습 도구의 지원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기쁨과 희망, 소속감과 을 심어 준다, 이 같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학습 도구들은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로 하여금 힘든 시간을 잊게 만들고 마치 내가 수퍼 히어로인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또한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인 매솿의 미얀마 활동가 12명 (연 참여 인원 36명)들에게 아동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놀이치료 ToT(Training of trainer) 훈련을 지원하였다.

이 훈련은 9월 18일 ~ 25일 사이 3회 훈련으로 진행되었으며 “트라우마 이해와 안정화 기법, 심리교육 프로그램과 안전한 장소 찾아가기 훈련, 바디 스캔을 통한 자신의 신체, 감정 이해하기”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활동하고 있는 기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후속 훈련을 1회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학용품 지원 및 놀이치료 ToT(Training of trainer) 프로그램은 광주NGO지원센터, 카카오 같이 가치 모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첨부>

○ 관련 활동사진 5매 <끝>

<참고 자료>

미얀마의 교육 상황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료인, 교사등 공무원이 시민불복종 운동(집단 파업)에 돌입하였고 군부는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전문직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파업 인원의 50%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¹⁾ 알려지고 있다.

1)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CDM(시민불복종운동) 50% 정도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군부의 수배, 투옥의 위험 때문에 도피 생활, 저항군 가담, 태국 국경지대인 매솿 피신등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들의 파업으로 미얀마는 심각한 교육 중단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는 교사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 중단, 무자격 교원의 증가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 거부도 존재하는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무장 충돌 등)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독재 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분쟁지역에서의 교육 중단 상황은 심각하다. 잦은 분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운영되기 어렵고 고향을 떠나 정착한 다른 지역에 마련한 천막 학교마저 연이은 분쟁으로 없어지기 일쑤이다.

미얀마는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민족별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큰 교육 격차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분쟁으로 인한 교육 중단의 상태는 이 격차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2022년 UNHCR은 미얀마 인권보고서에서 “미얀마는 한 세대를 잃어 버리고 있다, 군부가 미얀마의 아이들을 파괴하고 미얀마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교육 중단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는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 천막 학교를 짓고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역량강화 및 급여)지원, 학용품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끝>